

2003년  
인쇄 및 관련업계  
결산



## \* 소프트웨어 공급업계

# 출판 및 편집프로그램 봇물

올 한해에도 출판 및 편집 관련 하드 및 소프트웨어가 속속 출시됐다. 우선은 지난 2002년 11월에 발표되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매킨토시 OS X 이상 버전에서 활용 가능한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M-Layout'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1.5K 버전이 지난 5월에 발표된 데 이어, 8월에는 1.55K 버전이 발표됐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매킨토시 OS X 버전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 가능한 서체의 빈약함 때문에 시장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올해는 8월 19일 1.55K 발표를 기점으로 207종의 OTF 서체를 번들용으로 제공함으로써 그야말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M-Layout'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성능 대비 저렴한 가격대라 할 수 있다.

인큐브테크를 통해 수입 발표되고 있는 'QuarkXPress'도 기존 매킨토시와 윈도우에서 활용 가능한 'QuarkXPress4.1K' 버전을 발표했다. 특히 윈도우용 'QuarkXPress4.1K'의 출시를 국내 출판 시장에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내 출판 및 편집 시장에서 퀵의 사용 빈도수는 가히 절대적이다. 하지만 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퀵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반화된 PC가 아닌 매킨토시라는 하드웨어를 별도로 구입해야 했다. 하지만 윈도우용 퀵프로그램이 발표되면서 또다른 컴퓨터를 마련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적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었다. 아울러 매킨토시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일반 PC에서 활용 가능한 InDesign이나 코렐, 페이지메이커

등을 사용하던 교육기관들도 별도 하드웨어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무현장에서 활용되는 퀵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점도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윈도우용 퀵은 하드웨어 구입에 따르는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Qfont 번들 제공에 따른 트루타입 서체비용이 줄어들었으며, 분판 출력을 지원하는 관계로 별도의 윈도우용 분판 프로그램 구입 비용 또한 해소됐다. 아울러 매킨토시용 퀵 프로그램과 상호 호환이 가능해 졌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에스디지탈이 수입 공급하고 있는 CorelDRAW 프로그램도 지난 2000년 CorelDRAW 10 발표 이후 3년 만에 업그레이드 버전인 CorelDRAW 11 한글 프로그램을 3월 13일 발표했다.

특히 영문 CorelDRAW 11 버전은 윈도우뿐만 아니라 매킨토시 OS X 버전 이상에서도 활용 가능해져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어도비시스템즈도 지난 10월 15일에 InDesign 2.0 버전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InDesign CS 버전을 발표했다. 제대로 된 한글 버전 출시가 여전히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 가운데 국내 InDesign 사용자들은 내년 4월에 출시될 예정인 한글 플러그인 제품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

한편 어도비의 경우 올해부터 편집과 출판관련 소프트웨어의 제품 사양을 OS X 버전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약하고 있으며, 애플코리아 이미 지난해부터 OS X 이하 버전의 매킨토시 제품을 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기자〉